

## Mr. 토터와 구와바라様, 한국의 ‘에너지 농부’와 通하다 -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국제심포지엄 -

- **일시** : 2012년 2월 27(월)~29일(수)
- **장소** :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28일)/ 전북 부안군, 임실군(29일)
- **주최** : 전북의제21, 전북발전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지역농업연구원, 녹색연합, 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에너지시민연대, 전국기후변화네트워크
- **후원** :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 JTV, 전북일보

세계적인 ‘에너지자립마을’의 모범 사례인 오스트리아 무레크의 칼 토터 씨와 일본 오가와 마을의 구와바라 씨가 2월 28(화)~29일(수) 한국을 방문한다. 토터 씨와 구와바라 씨는 농민이면서 농촌 현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자금을 모으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에너지자립마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전라북도의 농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 오스트리아 무레크 市, 칼 토터 씨의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

토터 씨는 오스트리아 시골마을 무레크 市를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일궈냈다. 주민 1,700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70%를 생산해 마을에서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인근 마을에 판매한다. 1989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해 유채씨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SEEG, 간벌목과 폐목재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축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차례대로 성공시켰다. 무엇보다 마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모두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을 고용하고,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마을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하였다. 무레크는 유럽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유로솔라>로부터 ‘세계 에너지 대상’과 ‘유럽 태양에너지 대상’을 받았다. 토터씨 본인도 포도주와 호박씨 기름을 생산하는 농부이면서 SEEG 운영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식량도 생산하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무레크 농민들의 기분 좋은 ‘투잡’ 세계가 궁금하다면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국제 워크숍에 꼭 참석하기를 바란다. 국내에는 2010년까지의 무레크 소식이 소개되어 있으나 토터 씨에 의하면 지난해 무레크에서 훨씬 더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그 경험을 나누겠다고 전한다.





### ■ 일본 오가와 村, 구와바라 씨의 ‘NPO법인 풍토(風土)활용센터’

도쿄에서 전철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오가와 마을은 인구 3만 3천명의 한적한 시골마을이다. 구와바라 씨는 2002년 NPO법인 <오가와마찌 풍토(風土)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주민모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저리로 <AP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008년 지역의 건축자재와 지역일꾼을 동원해 자신이 설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완성했다. 현재 오가와 마을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음식물과 1백여 가구의 음식물을 모아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처리하고 있다. 생산되는 가스는 전력과 온수 시범생산에 활용하고, 소화하고 남은 액비는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보내주는 가정에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의 농부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오가와 마을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과 자원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와바라 씨는 농민이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만드는 기술자이기도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모델을 만들어낸 마을 만들기 기획가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 충청남도 홍성 문당리 ‘풀무학교’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만들기 워크숍에도 참여하였던 구와바라 씨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Mr. 토터와 구와바라 様, 두 분 모두 한국에서의 발표는 처음으로, 이번 방문은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의 에너지 농사꾼들이 만나 에너지자립마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29일에는 전라북도의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인 부안 등용마을과 임실 중금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 세부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2월27일	18::00~21:00	환영만찬 및 사전워크샵
2월28일	13:30~13:50	포토타입 및 인터뷰, 문화공연
	13:50~14:10	1부. 개회식(사회: 전북의제21사무처장)
	14:10~14:20	휴식
	14:20~15:40	2부. 토론회 좌장 : 오창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해외사례 발표> * 오스트리아 무레크 시의 사례 /토터 (농민, SEEG 운영이사) * 일본 오가와 마을의 사례 /구와바라 (농민, NPO후우도 대표)
	15:40~15:50	휴식
	15:50~16:20	발제1. 한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전망 -이유진 (녹색연합) 발제2. 전북 부안 등용마을, 하서면 권역의 사례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16:20~16:50	발제3. 정부의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과정 분석 -김연중(농촌경제연구원) 발제4.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북의 현황 및 전망 -장남정 (전북발전연구원)
	16:50~17:00	휴식
	17:00~18:00	지정토론 토론1 : 전라북도청 토론2 : 완주군수 토론3 : 에너지시민연대 토론4 : 지역농업연구원 토론5 : 전북환경운동연합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발표자와 자유토론
2월29일	9:00~	현장방문 1. 부안군 등용마을,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4:00~	현장방문 2. 임실군 중금마을
	18:00~19:00	저녁식사

담당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063-286-7977) / 전북의제21 김영광(063-232-3543)